

계량서지학 분석을 활용한 소리언어와 수화언어 언어정책 연구 동향 분석*

이선혜 · 전해원** · 강현순***

(부경대학교 · 한국해양대학교 · 고신대학교)

Lee, Seonhye; Jeon, Haewonm & Kang, Hyun Soon. (2024). A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language policy for spoken and sign language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2(4), 1-23. Despite the wealth of studies on language policy in spoken and sign languages, more meta-research is needed on the worldwide development and trends of this area of investigation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occupation of this gap allows scholars to take stock of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get overviews of the contributions made to the field, foresee future research trends, and identify research needs and gaps that may be addressed in future investigations. Analyzing publications from 1990 to 2024 from the Web of Science, this study identifies the evolution and trends of language policy in spoken and sign languages, revealing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spoken and sign languages through keyword analysis. The results show a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ations, and the US is the leading country in the number of publications in spoken and sign languages. We examine the evolution of language policy in spoken and sign languages through research output, citation patterns, and thematic timing to identify key trend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sign language, this study reveals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in research topics between spoken and sign languages. These results contribute to identifying new research needs and, therefore, to developing future directions in language policy.

주제어(Key Words): 언어정책(Language policy), 언어계획(Language planning), 계량서지학(bibliometric analysis), 수화언어(sign languages), 연구동향(research trends)

* 본고는 2024년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제1저자

*** 교신저자

1. 머리말

언어 정책과 계획 (Language policy and planning; 이하 LPP)은 특정 지역이나 맥락 내에서 언어의 사용, 구조 및 지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 기관 또는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언어 교육, 문해력 프로그램, 언어 권리 및 공용어 지정 규정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언어 정책은 언어 사용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두며, 언어 계획은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단계를 다룬다. LPP는 언어 보존, 문화적 정체성, 사회적 통합 및 변화하는 사회적, 의사소통적 요구를 충족하도록 언어를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LPP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2023년에 ‘이탈리아어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안(Legislazone per la tutela e la promozione)’을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 사용 비중 감소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김현정, 2024). 프랑스는 일찍이 1994년 프랑스어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 공식 간행물, 광고, 직장과 학교 등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하는 투봉법을 실시하고 있다.

소리언어의 경우 언어 정책에는 종종 자국어 홍보, 언어 다양성 보존, 공공 영역에서의 언어 사용 규제 등이 포함된다 (Spolsky, 2004). 그러나 수어의 경우 정책은 수어 통역사 제공, 학교 커리큘럼에 수어 통합, 수어를 소리언어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농인 커뮤니티의 사회 문화적, 교육적 요구를 해결해야 한다 (Reagan, 2006; 국립국어원, 2024). 19세기 미국 수어에서의 초기 정책은 청각 장애 교육에서 수화를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20세기 남북전쟁 이후 수어보다 말을 강조하는 구술주의(Oralism)가 부상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미국수어는 20세기 초반까지 합법적인 언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Timothy G. Reagan의 미국 수어의 언어정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중반부터 수어를 완전한 언어로 인정한 William Stokoe의 연구와 같은 연구에 힘입어 수어를 합법화(legitimization)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수어는 지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미국 농아인 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NAD)는 연방정부가 수어를 청각장애인의 합법적인 언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수어에 대한 주 정부의 입법은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주에서는 미국 수어(이하 ASL)를 언어로 인정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외국어로만 인정하고 있다.

언어학 연구에서도 초기에 수어가 청인들이 단순한 몸짓 체계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Stokoe (1960)와 Brennan et al. (1984)에 의해 자연 언어(Natural Language)임이 증명되어 언어학의 연구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Berwick and Chomsky (2017) 역시 진화와 유전학 관점에서 인간언어를 고찰해야 하며, 수어를 하나의 완전한 인간 언어, “a full human language”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에 불과하다는 오해는 여전히 일반 대중 사이에서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의 부족과 청각장애인의 전문 직종 진출이 적은 것에 기인한다. 2006년

에 채택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CRPD)은 수어를 소리언어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각국 정부가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한국 수어((Korean Sign Language, 이하 KSL)의 경우 한국 정부가 한국수화언어법 (2016)을 통해 KSL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수어의 공식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아직 동등한 언어로 인정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어는 종종 사회적 편견과 구술주의를 바탕으로 수어보다 소리언어를 선호하는 등 추가적인 장벽에 직면하여 계획 및 실행 과정의 복잡성을 야기한다고 한다 (Reagan, 2006; Rose & Conama, 2018). 이러한 수어의 배경은 언어적 정보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농인 커뮤니티의 고유한 요구를 포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수어의 LPP는 소리언어의 언어 정책과 넓은 관점에서는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이러한 수어의 특수한 배경에 의한 차이점도 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계량서지학적 분석(Bibliometric Analysis)은 과학 문헌에 대해 수행되는 체계적인 연구로, 특정 분야의 패턴과 동향을 파악하고 특정 분야의 패턴, 트렌드 및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체계적인 연구이다 (Passas, I., 2024). 또한, 현재 화제가 되는 연구 주제(hot spots) 및 향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Fan et al., 2023; Liu et al., 2004), 체계적인 문헌 검토의 초기단계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Donthu. et al., 2021; Khan et al., 2021). 계량서지학 연구는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난 35년간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 생산물 자료들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여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기본 정보와 키워드 분석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해당분야에 지침을 제공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제시한다.

첫째,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은 어떤 양상으로 발전해 왔는가?

둘째, 키워드 분석을 통한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 분야의 주제별 동향은 어떠한가?

위의 연구 목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언어 정책에 관한 소리언어와 수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간 학계에서 주로 다루어진 주제와 분야 내 초점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연구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은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연구 동향에 대한 전망과 언어 정책 연구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 제 1장 머리말에서는 언어 정책에 관한 소리언어와 수어의 현황과 연구목적을 밝히고, 제 2장에서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이해한다. 그 다음 제 3장에서 자료수집과 연구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고 제 4장에서 도출된 자료를 토대로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정책에 관한 1990년에서 2024년까지의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본고의 전체 논의를

정리하고 추후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시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

2. 계량서지학적 분석

과학 문헌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인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도입 이후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Chen et al., 2018; Donthu et al., 2021; Ellegaard and Wallin, 2015; Li and Lei, 2020). 원래 기본적인 인용 추적에 중점을 두었던 이 분야는 방대한 학술 출간물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metrics)와 방법들을 포함하는 정교한 분석 프레임워크로 확장되었다.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정량적(quantitative) 기법을 나타내기 위해 Pritchard (1969)가 도입했으며, 이후 학계에서 연구 영향력과 동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 Eugene Garfield에 의한 초기 개발은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 연구자들에게 과학 인용 색인(Science Citation Index) 네트워크를 탐색하고 학술 연구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했다. 이는 1965년 과학 네트워크와 학술적 커뮤니케이션의 역학에 기초 개념을 제공한 Derek John de Solla Price의 노력으로 인용 네트워크 분석은 계량서지학에 대한 구조화된 연구 프로그램의 기본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혁신은 현대 계량서지학적 방법론의 길을 열게 되었다(Al-Jamimi et al., 2022; Koskinen et al., 2008).

학계에서는, 논문 및 학술지 성과, 협업 패턴, 연구의 새로운 동향 파악, 구성 요소 및 기존 문헌 내에서 특정 영역의 지적 구성 탐색, 축적된 과학 지식과 진화의 미묘한 차이를 매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사용한다 (Laengle et al., 2020; Ragazou et al., 2022; Passas et al., 2022). 이런 계량서지학적 분석은 과학 연구에서 한 영역의 추세와 구조적 구성을 보여주는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통해 방대한 정보를 관리하려는 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용 횟수 등 문헌의 다양한 측면을 정량화된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공동 저자 패턴, 지적 구조 및 패턴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이 기법은 특히 많은 양의 자료가 포함된 보다 전반적인 검토에 적합하며, 연구 분야를 매핑하고, 논쟁에 영향을 미친 주요 출간물, 저자 및 저널을 감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 주제가 어떻게 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데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3. 자료 수집과 연구 방법론

3.1. 자료 수집 및 처리과정

본 연구에서는 소리언어와 수어에서 LPP를 적용한 그 간의 연구들의 동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Clarivate Web of Science(이하 WoS)라는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지정보를 수집하였다. WoS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학술지 평가 기준인 SCI(Science Citation Index)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등의 학술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인용색인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계량서지학적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다 (Li et al., 20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의 제목, 키워드, 초록에 ‘language policy’ 또는 ‘language planning’을 포함하는 출간물의 서지정보의 추출을 위해 검색 옵션을 ‘Topic(주제)’으로 설정하고 아래 (1)에 나열된 주제 문자열(topic strings; TS)을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 (1) a. For spoken languages, TS = ("language polic*" OR "language planning") NOT "sign language*" OR "signed language"
- b. For sign languages, TS = ("language polic*" or "language planning") AND "sign language*" OR "signed language"

위의 검색어 (1a)와 (1b)는 각각 소리언어에서의 LPP와 관련된 광범위한 연구와 수어에서 그에 상응하는 분야의 연구들을 모두 포괄하는 맥락을 포함하도록 선택되었다. 또한, 보다 더 주제에 맞게 연구된 우수한 논문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정제(refinement) 작업을 거쳐 본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논문이 출간된 연도의 기간을 1990년부터 2024년으로 설정하고, 검색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SCI급에 준하는 학술논문의 색인으로 한정하였다. 문헌의 유형은 학술논문(article), 프로시딩즈 논문, 얼리 액세스(early access) 논문으로, 언어는 영어로 한정하여 검색한 자료를 수작업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소리언어와 수어에서의 논문 서지정보를 위해 필요한 문서를 각각 4171개와 507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일반 텍스트 파일(한 번에 최대 1000개씩으로 추출 가능한 자료들을 다시 병합한 파일)로 저장하여 다른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3.2. 계량서지학적 분석 기법과 적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대 계량서지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서론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계량서지학적 성능(performance) 분석 및 과학 매핑(science

mapping)이 사용된 주요 방법이며, Donthu et al. (2021)가 수립한 지침과 권장사항을 따른다. 이러한 기법에는 출간 횟수 분석, 인용 영향력 분석 및 공동 단어 분석(Zupic and Čater, 2015) 등이 포함된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사용되는 기법은 일반적으로 계량서지학적 분석에서 중심성(centrality) 정도 (Freeman, 1978)와 Bibliometrix R을 사용한 네트워크 계량적 분석, 클러스터링 및 시각화(visualization)에서 페이지랭크와 같은 강화(enrichment) 기법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출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Biblioshiny라는 앱을 활용했다. 이 앱은 Bibliometrix 라이브러리와 동일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앱을 말한다. 또한, 주제별 진화(thematic evolution)를 소리언어와 수어에서 각각 주요 두드러진 특징을 기준으로 네 가지 기간에 걸쳐 Biblioshiny에서 분석하고 시각화했다. 코퍼스 언어학에서 학자들은 코퍼스 키워드(Jhang et al., 2020; Scott and Tribble, 2006)를 사용하여 키워드의 동향을 파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량서지학적 분석에서는 네 가지 기간에 걸친 저자 키워드(author's keywords)의 빈도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주제 동향을 추적한다. 따라서 원본 자료에서 연도 및 출간 정보 자료를 엑셀로 재구성하고 데이터 수집 기간으로 그룹화했다. 자료 분석에는 자료의 통계 처리, 데이터 마이닝 등에 주로 이용되는 R 패키지를 활용하였는데, 그 중 서지 분석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인 bibliometrix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표현에는 앞서 언급한 biblioshiny를 구동했다.

표 1. Main Information of the Dataset

Category	Descriptions	Results	
		spoken languages	sign languages
Main information about data	Time span	1990-2024	1990-2024
	Sources(Journal, Books, etc.)	1031	214
	Documents	4171	507
	Annual Growth Rate %	-3.88	0
	Document Average Age	7.65	9.46
	Average Citations Per Document	12.35	20.79
	References	138304	19725
Document contents	Keywords Plus (ID)	2469	904
	Author's Keywords (DE)	8557	1217
Authors	Authors	5802	918
	Authors of Single-authored Documents	1598	110
	Single-authored Documents	1999	147
	Co-Authors Per Document	1.94	2.81
	International Co-authorships %	18.87	23.47

Category	Descriptions	Results	
		spoken languages	sign languages
Document types	Article	3840	478
	Article; Early Access	250	12
	Article; Proceedings Paper	81	17

위의 표 1의 데이터 세트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언급하자면, 데이터 세트에는 소리언어에서는 1031개, 수어에서는 214개의 개별 소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유형의 출간물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성은 소리언어와 수어에서의 LPP에 관한 학제 간 특성을 강조하며 여러 학문 분야와 연구 분야로부터 도출되었음을 시사한다.

소리언어에서 총 4171개와 수어에서 총 507개의 문서가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었으며, 논문, 얼리 액세스 논문, 프로시딩즈 논문과 같은 학술 논문 유형의 광범위한 자료는 "언어정책 및 계획"이라는 주제를 소리언어와 수어에서 어떠한 학술적 결과물로 도출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 세트는 또한 연간 -3.88%와 0%의 성장률을 각각 소리언어와 수어에서 보여주며 이는 지난 수년간 연구 활동이 꾸준히 감소했음을 반영한다. 흥미롭게도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문서의 평균 연령은 소리언어는 약 7.65년, 수어는 약 9.46년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검색의 주된 주제인 소리언어와 수어에서의 "언어 정책 및 계획(LPP)"이 지난 10년 동안 점점 더 관련성이 높은 주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각 데이터 세트의 문서가 소리언어 분야에서 약 12회, 수어 분야에서 약 21회 정도 인용된 것으로 연구의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이 지표는 이 주제에 대해 산출되는 작업의 중요성과 더 넓은 학술 커뮤니티와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이 데이터 세트에는 특히 소리언어에서 많은 수의 참고문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선행 연구의 광범위한 사용과 연구와 출간물에 대한 학술적 참여의 깊이를 반영하며 현재 연구가 구축된 탄탄한 학문적 토대를 보여준다.

키워드 관련 플러스(ID) 및 저자 키워드(DE)와 관련하여, 데이터 세트에는 소리언어 2469개와 수어 904개의 키워드 플러스(인용된 논문 제목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용어 논문 제목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용어)와 이에 상응하는 저자 키워드(저자가 직접 제공한 특정 키워드)는 8557개와 1217개가 있음을 보여주며 많은 수의 키워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연구 주제를 시사한다. 이 데이터 세트에는 5802명과 918명의 저자가 각기 소리언어분야와 수어분야에 기여했고 단일 저자의 문서와 공동 작업의 문서 등 학제 간 공동의 노력과 글로벌 협업이 잘 이루어짐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세트에는 다양한 학술 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 소리언어의 학술지 논문 3840개와 수어의 학술지 논문 478개, 얼리 액세스 논문, 학회 논문 등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데이터세트의 주요 정보에서

소리언어 분야에서의 언어 정책 및 계획을 다룬 학술논문 4171개와 이에 상응하는 수어 분야의 학술논문 507개를 최종 비교 분석 자료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와 논의 사항

4.1. 출간물 동향(Publication Trends)

4.1.1. 기간별 출간물 동향(Publication Trends)

연구 성과물의 출간 횟수는 특정 연구 분야의 성숙도, 활력, 그리고 특정 연구 영역의 발전 추세를 나타낸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의 출간연도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그림 1은 연도별로 소리언어와 수어에서 언어 정책에 대하여 출간된 논문의 수와 주요 연구 기간을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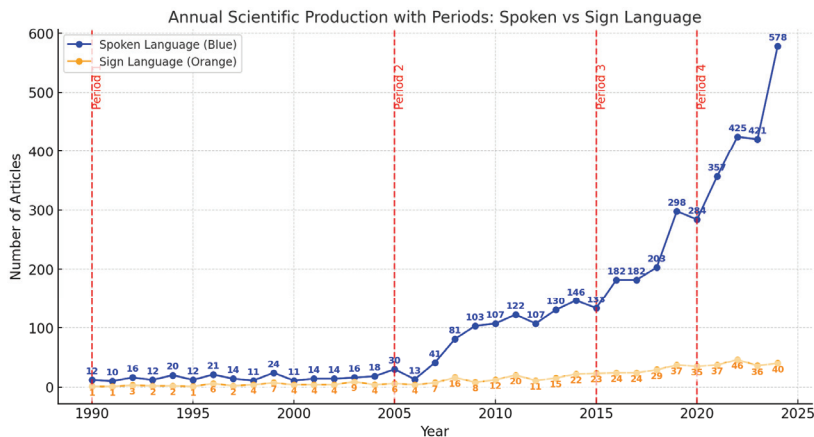


그림 1. 소리언어와 수어에서의 연구 주제 관련 연도별 출간물 수와 주요 기간 분류

위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소리언어와 수어에서의 언어 정책 관련 연구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지점을 기준으로 네 개의 기간으로 분류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기간 분류 설정의 기준을 출간물 수의 변화와 성장단계로 설정했다. 다시 말하자면, 소리언어와 수어의 연간 출간물 수 변화의 주요 패턴과 피크(peak)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고 성장 단계에 따라 제 1기(1990년~2005년), 제 2기(2005년~2015년), 제 3기(2015년~202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4기(2020년~2024년)로 정하여 구분했다.

각 연구 성장 단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각 시기를 살펴보면, 먼저 제 1기는 연구 초기 단

계로 초기에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 기간은 연구 활동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한 시기로, 연구 관심이 점차 확산되었으나 주요 성장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소리언어와 수어 모두에서 연구 활동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며, 연간 출간물 수의 변동이 크지 않고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는 시기이다. 소리언어에서는 초기 연간 출간물 수는 1994년, 1996년, 1999년, 2005년에 약간의 증가가 나타나지만 그 외에는 20편이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소리언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주제로 출간된 국제 핵심저널은 연구의 제 1기인 1990년부터 2005년까지 16년 동안 평균 16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수어에서도 1999년에 7편, 2003년에 9편을 제외하고는 매우 적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연간 출간물 수는 대부분 1~6편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기는 성숙으로의 전환기로 이 시기는 소리언어에서 점진적인 증가가 나타나는 시기이며, 수어에서도 연구가 조금씩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소리언어에서는 연간 출간물 수가 30편에서 약 150편 정도까지로 증가하며 출간 평균은 약 99편으로 이전 연구 기간의 평균에 비하여 약 6배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이 기간에 연구 활동이 보다 활발해졌고, 수어에서도 2015년에 23편까지로 제 1기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제 3기는 급격한 성장기로 소리언어에서는 그래프의 피크정도로 미루어 볼 때 이 시기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간 출간물 수가 180편에서 300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수어에서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소리언어는 연구 활동이 본격적인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수어는 연구 활동의 안정적 지속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 4기는 높은 연구 집중기로 소리언어에서는 연간 출간물 수가 300편을 초과하며, 2024년에는 약 578편으로 정점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어에서도 연간 출간물 수는 평균 39편으로 유지되며, 연구가 안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소리언어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어 또한 연구 활동이 꾸준히 유지되며 성숙기에 접어드는 단계로 평가된다.

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수어의 언어 정책 연구의 경우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출간된 학술논문이 총 507편인데 이는 해당 기간 소리언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출간물 수(4171편)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숫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10년 이후의 증가 추세인데, 이는 여러 나라가 자국의 수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2006년), 아이슬란드(2011년), 핀란드(2012년), 대한민국(2016년)¹⁾ 등이 자국 수어에 법적 인식을 부여했으며, 이는 이러한 인식의 정책적 함의에 대한 연구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초반에는 농인학 및 사회언어학 연구가 확장되었으며, 소수 언어와 언어 권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여기에는 수어를 독립적인 언어로 인식하고 그 복잡한 사회언어학적 역할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새

1) 2016년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이 한국수화언어법령으로 제정 및 공포되었다.

로운 연구와 출판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기술 발전으로 수어 가시성이 증가하면서 영상 중계 서비스나 소셜 미디어의 확대를 통해 수어 관련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가시성의 증가는 언어 정책, 정보 접근성, 평등권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촉발하며 학술적 연구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수어 언어 정책에 관한 연구가 2019년에 들어서면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4.1.2. 국가별 출간물 동향(Publication Trends)

소리언어와 수어에서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가장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논문 출간물 수에 따라 상위 10위까지의 연구 주제 관련 출처가 되는 저널들을 뽑아보면 아래 그림 2와 같다. 좌측 이미지는 소리언어에서의 관련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우측 이미지는 수어에서의 관련 출처 10위까지의 리스트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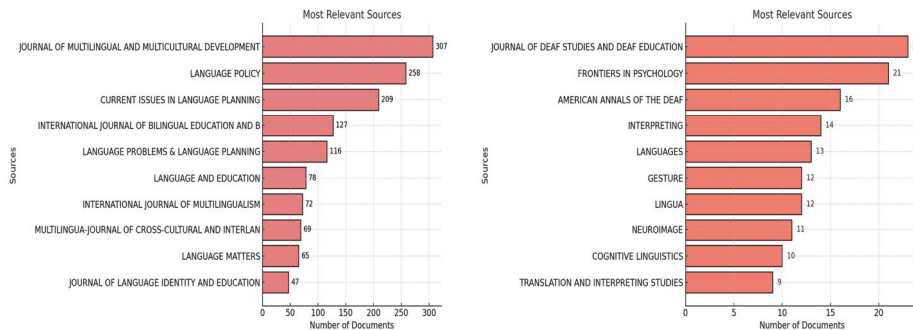


그림 2. 소리언어와 수어에서의 연구 주제 관련 출처 현황

위 그림 2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리언어에서는 영국에 소재를 두는 저널이 7개(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Current Issues in Language Plan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Language and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Language Matters,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네덜란드 소재의 저널이 2개(Language Policy, Language Problems & Language Planning) 그리고 독일 소재 저널인 Multilingua(Journal of Cross-Cultural and Interlanguage Communication)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리언어에서 언어정책에 대한 연구는 영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어에서의 해당 연구를 출간한 저널은 네덜란드 소재 저널이 4개(Interpreting, Gesture, Lingua,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스위스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저널이 2개

(Frontiers in Psychology, Languages), 미국 소재의 저널 2개(American Annals of the Deaf, NeuroImage) 그리고 영국 소재의 저널인 Journal of Deaf Studies and Deaf Education 과 독일 소재의 Cognitive Linguistics라는 저널이 이에 속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수어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해당 주제의 연구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아래 그림 3은 논문 출간물 수에 따른 상위 10위까지의 주제 관련 연구 기관을 나타낸다. 이 연구기관이 속해 있는 나라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에서 소리언어와 수어에서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좌측 이미지는 소리언어에서의 관련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우측 이미지는 수어에서의 관련 연구기관 10위까지의 리스트를 출간물 수를 기준으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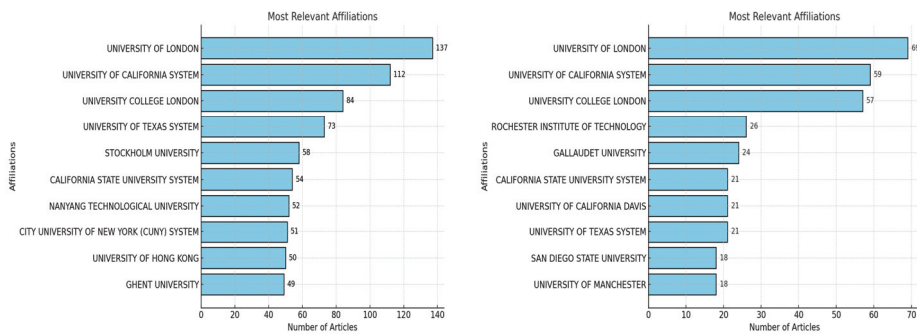


그림 3. 소리언어와 수어에서의 연구 주제 관련 기관 현황

위 그림 3에 보여지는 기관들이 속한 나라 정보를 언급하자면, 소리언어에서는 미국에 본거지를 둔 연구기관이 4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University of Texas Syste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System), 영국 소재의 연구기관이 2개(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그리고 홍콩의 연구기관인 University of Hong Kong, 싱가포르 소재의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스웨덴에 있는 Stockholm University, 벨기에 소재의 Ghent University이 이에 속한다. 이를 통해 소리언어에서 언어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어에서의 해당 연구를 진행한 기관은 미국 소재의 연구기관이 7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Gallaudet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University of Texas System, San Diego State University)와 영국 소재의 University of London, University College London, 그리고 University of Manchester가 이에 속한다. 소리언어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서 해당 주제

의 연구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또한, 소리언어와 수어 모두에서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은 5개로 미국소재의 기관인 3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University of Texas System)와 영국 소재 연구 기관인 University of London과 University College London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이 기관들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소리언어에서 뿐 아니라 수어 분야에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Stokoe (1960) 연구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수어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언어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국가는 위의 그림 2와 3에서 보듯이, 미국과 영국의 논문 생산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국가별 분포도 역시 수어에 비해 소리언어에서 훨씬 더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이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뒤를 유럽 내 여러 기관이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4.2. 인용(Citations)

해당 분야의 연도별 인용지수 분석을 통해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 동향과 핫스팟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는 1990년에서 2024년까지의 소리언어와 수어에서의 언어 정책에 관한 인용 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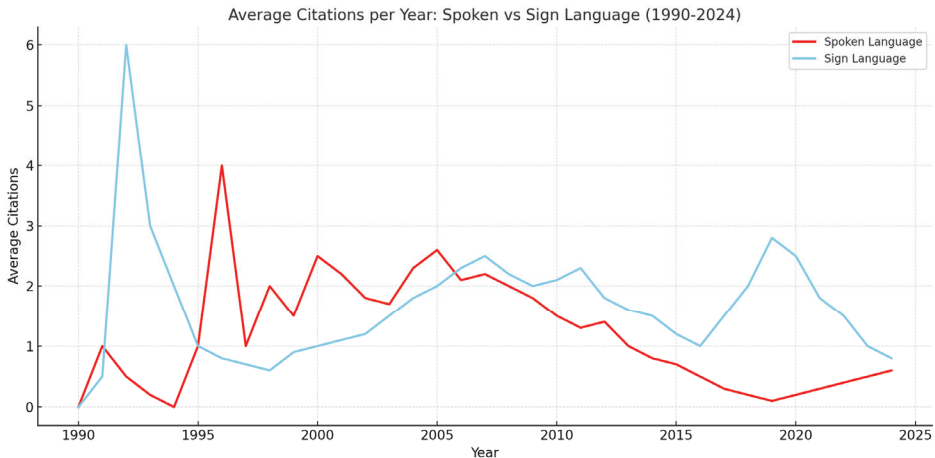


그림 4. 1990년~2024년까지의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정책에 관한 인용지수

위 그림 4에서처럼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소리언어와 수어 연구의 연도별 평균 인용수를 비교한 결과, 두 연구 분야는 서로 다른 인용 패턴과 변화를 보여준다. 소리언어 연구는 1990년대 중반과 2000년 초반에 인용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후 2010년대에 들어 인용 수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소리언어 연구가 특정 시점에서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이후 연구 주제의 변화나 학문적 관심이 다른 분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1996년과 2004년에 각각 피크를 기록한 후 점차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Sánchez-Pérez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이중 언어 교육(bilingual education)에 관한 출판물의 수는 1969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는 1969년부터 출간된 학술논문을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기간(1969-1978년)에는 연평균 6건의 관련 문서가 발행되었다. 이후 20년(1979-1988년, 1989-1998년) 동안에는 각각 20개와 21개의 문서가 발행되어 3배로 증가했으며,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 수가 다시 두 배로 증가했다. 그의 연구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이 1990년대 말 급증하기 시작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소리언어의 언어정책에는 이중 언어와 교육이라는 사회적인 관심이 반영되어 이는 해당 저널의 출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수어 연구는 1990년대 초반에 높은 평균 인용 수를 기록하며 시작되었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된 패턴을 보였다. 그림 4에서 보듯이,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수어 정책에 관한 논문 인용 지수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수어 권리와 인식에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발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6년에 채택된 CRPD에서 수어와 다른 소리언어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각국 정부가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증진해야 한다고 CRPD 제2조2)를 통해서 규정한 것이다. Batterbury (2012)에 따르면, 영국에서 CRPD는 현재 수어 정책의 출현을 지원하는 가장 진보적인 법적 수단이며, 이는 수어에서 이중 언어 교육과 영국 수어(이하 BSL)와 아일랜드 수어(ISL)의 공식적인 인정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가나, 그리스, 불가리아, 캄보디아, 에스토니아, 아프가니스탄 등 많은 국가들이 2012년 무렵에 이 협약을 비준함3)에 따라, 수어 정책에 관한 법적제도 마련과 더불어 언어 정책의 실시가 학술적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어 연구의 평균 인용 수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최근 수어 연구가 다시 학문적 관심을 끌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증가는 수어 연구가 심리학, 인지과학, 신경과학과 같은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을

2) Article 2 defines: “language” as including spoken and signed languages and other forms of non-spoken languages (UN 2007, p. 4)

3) https://tbinternet.ohchr.org/_layouts/15/TreatyBodyExternal/Treaty.aspx?Treaty=CRPD에서 Ratification Status for CRPD에서 항목 확인 가능하며 인권법에 뿌리를 둔 UN CRPD에는 수어에 관한 5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어를 인정하고 기타 언어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10개 국가가 CRPD를 비준했음을 알 수 있다.

수 있다. 특히, 2020년대 이후 수어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소통 방식에 대한 연구 관심 증가와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Warnicke, C., & Granberg, S., 2022).

두 분야 모두 인용 수의 변동성은 연구의 학문적 영향력과 학계의 관심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리언어 연구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연구 기반을 가지고 있으나, 특정 시기에 집중된 연구 주제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반면, 수어 연구는 학제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며, 최근의 상승세는 학문적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두 분야의 인용 패턴 분석은 연구자의 관심 변화, 학문적 협력 정도, 그리고 각 분야의 학문적 성장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특정 시점의 학문적 흐름을 분석하거나, 미래 연구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4.3. 키워드 빈도수 분석

연구자는 연구 주제와 연관된 영역에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학술논문에 일련의 키워드를 나열한다. 본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키워드는 WoS가 생성한 소리언어에서 2469개, 수어에서 904개가 추출되었다. 서론에서 제시한 본고의 연구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을 다룬 연구에서 추출된 키워드 플러스(Keywords Plus, KWP)에서 상위 25개⁴⁾를 뽑았고 이는 소리언어와 수어 각각의 중요한 연구 주제를 식별하는데 매우 용이하다. 아래 표 2는 소리언어와 수어 언어정책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상위 25개 키워드 자료이다.

4) 저자 키워드(Author Keywords, AUK)와 키워드 플러스(Keywords Plus, KWP)는 서지 분석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며, 선택 과정과 초점에서 주요한 차이점이 있다. AUK는 논문 제출 과정에서 저자에 의해 수동으로 선택되며, 연구의 핵심 주제, 아이디어 및 테마를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키워드는 주관적이며, 연구 질문, 방법론 또는 특정 발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용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AUK는 저자가 주제에 대한 이해나 강조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선택될 수 있다. 반면, KWP는 일반적으로 Web of Science와 같은 색인 서비스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되며, 논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의 제목에서 유래한다. KWP는 더 객관적이며,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들의 더 넓은 맥락에서 나온 용어들이기 때문에, 저자의 개인적인 선택보다는 연구 분야와 관련된 문헌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반영한다. 키워드 플러스는 관련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포착함으로써, 연구 분야 내에서 주요한 테마와 개념을 식별하고, 학술적 트렌드와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는 이런 이유로 키워드 플러스를 주요 데이터로 분석하였다.

표 2. 소리언어와 수어 언어정책에서 나타난 상위 25개 키워드

Keyword Plus (Spoken Language)		Keyword Plus (Sign Language)	
Words	Occurrences	Words	Occurrences
education	363	acquisition	53
language	360	language	46
english	328	speech	46
policy	313	deaf	45
language policy	148	children	40
students	140	gesture	35
children	107	perception	34
ideologies	97	sign-language	32
multilingualism	79	communication	31
speech	60	organization	28
higher-education	57	recognition	27
communication	50	comprehension	24
discourse	47	age	21
beliefs	46	english	21
spaces	43	hearing	19
deaf	42	brain	16
policies	41	deaf-children	16
globalization	40	education	16
schools	39	skills	16
perception	37	working-memory	16
gesture	36	activation	15
age	32	prosody	15
rights	30	iconicity	14
recognition	25	knowledge	14
earnings	25	asl	13

상위 25개의 키워드 플러스(KWP) 분석을 통해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공통된 주제와 뚜렷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데이터셋 모두 "언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language"는 말하기 언어 데이터셋에서 360회, 수어 데이터셋에서는 46회 등장한다. 또한 두 데이터셋은 언어 정책의 교육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소리언어에서 363회, 수어에서는 16회 출현한다. "children"과

"deaf"라는 키워드가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등장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과 농인 공동체와 관련된 언어 정책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recognition"⁵⁾이라는 용어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언어 권리와 실천의 인정이 두 언어 맥락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두 데이터셋 간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소리언어 데이터셋은 "english"(328회)와 "multilingualism"(79회)와 같은 용어에 강한 강조를 두며, 이는 영어의 세계적 역할과 다언어 정책에 대한 초점을 반영한다. Sánchez-Pérez (2021)의 이중 언어 교육 정책의 계량서지학적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의 발전은 1990년대부터 급증하여 이중 언어와 이중 언어 교육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 출간물 대부분이 짧은 시간에 극적인 성장을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수어 데이터셋은 "acquisition"(53회)과 "sign-language"(32회)와 같은 용어를 포함하여, 수화 언어 습득과 수화 언어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특정한 관심을 나타낸다. 또한 소리언어 데이터셋에는 "higher-education"(57회)과 "discourse"(47회)와 같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공식 교육 시스템과 언어 사용에 대한 더 넓은 초점을 반영한다. 반면 수어의 경우 "iconicity"(14회)와 같은 용어를 강조하여 수어의 독특한 시각적, 상징적 특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소리언어의 언어 정책이 더 넓은 글로벌 문제, 다언어주의 및 공식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반면, 수어의 언어 정책은 문화적 정체성, 언어 습득 및 지역 공동체 특화된 용어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4. 핵심 주제(Key Themes)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정책에 대한 핵심 주제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Bibliometrix분석을 통해 얻은 두 종류의 키워드 KWP 와AUK에서 상위 25개 최다 빈출어휘를 기반으로 이 분야의 언어 정책과 관련된 주요 주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소리언어 언어정책에 관한 KWP와 AUK 데이터셋에서 나타난 공통된 특징은 언어 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초점들을 반영할 수 있다. "language"라는 용어는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KWP에서 360회, AUK에서 92회 등장한다. 이는 소리언어의 언어 정책 연구에서 언어가 핵심적인 주제임을 강조한다. 또한, "education"이라는 용어는 KWP에서 363회, AUK에서 121회 등장하여 교육 시스템이 언어 습득, 교육, 다언어적 실천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multilingualism"와 "bilingualism"는 KWP에서 79회, AUK에서 350회, 156회 등장하며, 다언어 정책에 대한 강한 초점을 나타낸다. 소리언어의 언어정책 키워드 분석에서 "bilingualism"과 "bilingual education"이 상위권 빈도수로 나타난 것은 앞서 4.1에서 언어 정책에 관한 총 출간물 수가 1990년대 후반 급증한 것과 연결되는 맥락이

5) UN CRPD의 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어의 인정을 제안하고 있다.

"article 2: Recognizing and promoting the use of sign languages" (UN 2007, p. 15).

다.”bilingualism “은 수어에서 역시 상위 빈도수로 나타났다. Mitchell과 Karchmer (2004)의 연구에서 95%의 농인 아동은 부모가 농인이 아니거나 영유아기때부터 농인이었던 것은 아님을 밝혔다. 즉, 대략 5%만이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농인가족에 포함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농인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의 사용에 노출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McKee, R.,과 Smiler, K. (2016)의 뉴질랜드 수어 연구를 통해 농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농인 자녀(deaf of deaf⁶); 이하 DoD)는 쓰기(writing)에 있어서 이중 언어 사용의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였다. 이는 수어에서의 상위 키워드 25위 안에 bilingualism이 포함되어 있는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또한 "language planning"과 "family language policy" 용어도 AUK에서 255회 출현(3위)하는데, 교육적 및 사회적 맥락에서 언어 관리와 가족 단위에서의 언어 결정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family language policy(가족 언어 정책; 이하 FLP)⁷이며, King과 Fogle과 Logan-Terry (2008)의 연구에 따르면, FLP는 아동의 발달 궤적을 형성하고, 아동의 공식적인 학교생활의 성공과 중요한 방식으로 연결되며, 소수 언어의 유지 및 미래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등의 언어 정책이 가족 역학 관계와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 FLP 연구의 초창기에는 아동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오늘날의 FLP 연구는 언어 관행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탐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King (2016)은 FLP 연구에서 언어 이데올로기가 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의 FLP 연구는 정체성에 중점을 두게 된다.

또한, "언어 정책"과 "언어 권리"는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핵심 용어로 등장하며, 언어의 관리와 화자의 권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중 "globalization"은 KWP에서 40회, AUK에서 29회 나타나며, 글로벌 추세가 지역 및 국가의 언어 정책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합니다. 이와 같은 공통된 용어들은 KWP와 AUK 데이터셋이 언어 정책, 교육 및 다언어주의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다언어적 또는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 시스템 내에서 언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또한, 언어 권리와 언어 계획이 말하기 언어 정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어의 언어정책에 대한 KWP 와 AUK, 두 데이터셋에서 공통적으로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deaf"라는 용어는 KWP에서 45회, AUK에서 43회 등장하는데, 이는 언어 권리, 접근성 및 정체성에 대한 강한 관심을 반영한다. 또한 "gesture"는 KWP에서 35회, AUK에서 27회 등장하여, 수화 언어에서 시각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Iconicity"는 KWP에서 14회, AUK에서 30회 나타나며, 수화 언어의 시각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또한, "education"과 "acquisition"은 두 데이터셋 모두에서 중요한 주제로 강조되며,

6) 문화적으로 청각 장애인을 지칭할 때는 ‘청각 장애’를 대문자로, 청각 상태를 지칭할 때는 ‘청각 장애’를 소문자로 표기하는 관례가 전체에 걸쳐 사용된다 (Woodward, 1972).

이는 농인이 수어를 배우는 교육적 틀과 과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데이터셋 간에는 뚜렷한 차이점도 있다. KWP데이터셋은 "working-memory" (16회)와 "perception" (34회)과 같은 용어들을 통해 수어 사용의 인지적이고 소통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AUK에는 또한 "signed language interpreting" (14회), "deaf education" (13회), "language policy" (14회)와 같은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수어가 교육 및 정책적 맥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다룬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KWP 데이터셋이 수화 언어 사용의 인지적, 소통적 측면에 집중하는 반면, AUK는 교육적 및 정책적 맥락에서 수화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이 결과는 수어가 농인 사회에서 제스처나 정체성 같은 독특한 특성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수어 공동체 구성원은 자신을 장애 집단이 아닌 언어 공동체로 인식하며, 소수 언어 권리를 추구한다 (Jokinen, 2005; Ladd, 2003; Lane, 2008; Edwards, 2010). Batterbury et al. (2007)에서는 수어 공동체 자신을 "전 세계 지리적 공동체로서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존재론적 참조 틀"을 가진 문화적-언어적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이 전 세계의 수어 사용 인구(수어 민족)는 청각장애 감각을 구현하는 고유의 언어와 시각-몸짓-촉각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Ladd, 2003).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수어를 육성하는 언어 정책보다는 장애 혜택, 인공와우(cochlear implant) 이식, 소리언어 사용자 위주의 주류 교육을 선호하면서 자국 수어 사용자를 장애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Batterbury, S. C., 2012). 그는 언어 정의(justice)를 위해 수어에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소수 언어 정책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UN CRPD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언어 정의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장애 조약'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거부감이 있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조약보다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다. 이 협약을 통해 각 국가가 수어를 인정하고 수어의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인권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어 사용자를 위한 소수 언어 정책의 출현을 위한 잠재적 디딤돌이 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의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 생산물을 계량 서지학적 관점에서 분석했으며, 언어 정책 분야에서 이러한 연구는 이전에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계량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서 대량의 서지정보 자료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연구 영역과 지난 25년간의 출간물 파악, 지리적 영역,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통한 핵심 주제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소리언어와 수화언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전반적으로,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 생산물은 매년 출간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수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출간물의 수가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 한국도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통해 수어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수어의 법적 인정을 위한 노력 등이 학계 내에서 연구 생산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에서 발견된 경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해당 주제에 대한 출간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언어적 인권이 없고 소수 언어에 대한 의미 있는 배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어는 정보와 교육 접근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겪어왔으며, 이러한 수어의 사회적 배경은 소리언어와 수어 간에 언어 정책 연구 주제가 뚜렷하게 상이함을 본 연구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수어의 언어정책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위 키워드는 언어 인식을 의미하는 ‘perception’과 ‘recognition’이었으나 소리언어의 언어 정책에서는 ‘이중언어’와 ‘이중언어 교육’ 및 ‘다국어 사용’과 같은 키워드가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점은 수어의 언어 정책은 법적, 사회적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량서지학적 분석 연구를 통하여 지난 25년 동안의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 정책에 대한 연구 생산의 전반적인 모습을 제시하였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 소리언어와 수어의 언어정책의 핵심 주제가 어떻게 다른지 동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분야에 더욱 심층적 분석 및 비교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현정. (2024). 언어민족주의 관점에서 본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의 언어정책 비교 분석. *한국과 국제사회*, 8(4), 441-464.
- 국립국어원. (2024). *2024년도 업무계획*. 국립국어원(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Al-Jamimi, H. A., BinMakhashen, G. M., & Bornmann, L. (2022). Use of bibliometrics for research evaluation in emerging markets economies: A review and discussion of bibliometric indicators. *Scientometrics*, 127(10), 5879-5930.
- Batterbury, S. C. (2012). Language justice for sign language people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Language Policy*, 11, 253-272.
- Batterbury, S. C., Ladd, P., & Gulliver, M. (2007). Sign Language Peoples as indigenous minoritie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olicy. *Environment and Planning A*, 39(12), 2899-2915.
- Berwick, R. C., & Chomsky, N. (2017). Why only us: Recent questions and answers.

- Journal of Neurolinguistics*, 43, 166-177.
- Brennan, M., Colville, M. D., & Lawson, L. K. (1984). *Words in hand: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signs of British Sign Language*. Carlisle: British Deaf Association.
- Chen, X., Xie, H., Wang, F. L., Liu, Z., Xu, J., & Hao, T. (2018). A bibliometric analysis of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medical research. *BMC Medical Informatics and Decision Making*, 18, 1-14.
- Donthu, N., Kumar, S., Mukherjee, D., Pandey, N., & Lim, W.-M. (2021). How to conduct a bibliometric analysis: An overview and guideline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33, 285-296. doi:10.1016/j.jbusres.2021.04.070
- Edwards, R. A. R. (2010). Hearing aids are not deaf: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echnology in the deaf world.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3, 403-416.
- Ellegaard, O., & Wallin, J. A. (2015). The bibliometric analysis of scholarly production: How great is the impact? *Scientometrics*, 105, 1809-1831.
- Fan, T., Wang, X., Song, X., Zhao, G., & Zhang, Z. (2023). Research status and emerging trends in virtual reality rehabilitation: Bibliometric and knowledge graph study. *JMIR Serious Games*, 11, e41091. doi:10.2196/41091
- Fogle, L. W. (2012). *Second language socialization and learner agency: Talk in three adoptive families*.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Freeman, L. C. (1978). Segregation in social network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6(4), 411-429.
- Heffernan, M. (2011). *Wilful blindness: Why we ignore the obvious*. Simon and Schuster.
- Jhang, S.-E., Park, H.-M., Yaochen, D., & Lee, S.-H. (2020). Themes and Trends in Global Maritime Journal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KMI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12(2), 37-81.
- Jokinen, M. (2005). *Linguistic rights, Sign Language as a right i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in the legislation of UN member countries*. Presentation at the CRPD negotiations, President,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Monday 31 January 2005, <http://www.un.org/esa/socdev/enable/rights/ahc5sideevents.htm>. Accessed August 2020.
- Khan, M. A., Pattnaik, D., Ashraf, R., Ali, I., Kumar, S., & Donthu, N. (2021). Value of special issues in th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A bibliometric analysis*. *J. Bus. Res.*, 125, 295-313. [CrossRef]
- King, K. (2016). Language policy, multilingual encounters, and transnational

- families.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7(7), 726-733.
- King, K. A., Lyn W. F., & Aubrey, L. T. (2008). Family language policy. *Language and Linguistics Compass*, 2(5), 907-922.
- Koskinen, J., Isohanni, M., Paajala, H., Jääskeläinen, E., Nieminen, P., Koponen, H., & Miettunen, J. (2008). How to use bibliometric methods in evaluation of scientific research? An example from Finnish schizophrenia research. *Nordic Journal of Psychiatry*, 62(2), 136-143.
- Ladd, P. (2003). *Understanding Deaf culture: In search of Deafhood*.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Laengle, S., Merigó, J. M., Modak, N. M., & Yang, J.-B. (2020). Bibliometrics in operations research and management science: A university analysis. *Ann. Oper. Res.*, 294, 769-813.
- Lane, H. (2008). *Do Deaf people have a disability?* In H. D. L. Bauman (Ed.), *Open your eyes: Deaf studies talking* (pp. 277-292).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i, D., Ou, J., Zeng, Y., Hou, L., Yuan, Y., & Luo, Z. (2023). Bibliometric study on clinical research of osteoporosis in adolescent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1, 1041360. doi:10.3389/fpubh.2023.1041360
- Liu, C., Dai, Z., & Jhang, S. E. (2024).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on Gender Equality in the Maritime Industry. *New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66(3), 171-199.
- Macalister, J., & Seyed, H. M. (eds.). (2017). *Family language policies in a multilingual world.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consequences*. London: Routledge.
- McKee, R., & Smiler, K. (2016). Family language policy for deaf children and the vitality of New Zealand Sign Language. In *Family language policies in a multilingual world* (pp. 40-65). Routledge.
- Mitchell, R. E., & Karchmer, M. A. (2004). Chasing the mythical ten percent: Parental hearing status of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4(2), 138-163.
- Passas, I. (2024). Bibliometric analysis: the main steps. *Encyclopedia*, 4(2).
- Passas, I., Ragazou, K., Zafeiriou, E., Garefalakis, A., & Zopounidis, C. (2022). ESG Controversi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for the Sociopolitical Determinants in EU Firms. *Sustainability* 14, 12879. [CrossRef]

- Pavlenko, A. (2004). Stop doing that, Ia Komu Skazala!: Language choice and emotions in parent-child communication.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25(2-3), 179-203.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itchard, A. (1969). *Statistical Bibliography; An Interim Bibliography*.
- Ragazou, K., Passas, I., Garefalakis, A., & Dimou, I. (2022). Investigating the Research Trends on Strategic Ambidexterity, Agility, and Open Innovation in SMEs: Perceptions from Bibliometric Analysis. *J. Open Innov. Technol. Mark. Complex.*, 8, 118. [CrossRef]
- Reagan, T. (2006). *Language Policy and Sign Languages*. I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Policy: Theory and Method*(pp. 329-345). Wiley-Blackwell.
- Rose, H., & Conama, J. B. (2018). Linguistic imperialism: Still a valid construct in relation to language policy for Irish Sign Language. *Language Policy*, 17, 385-404.
- Sánchez-Pérez, M. D. M., & Manzano-Agugliaro, F. (2021). Worldwide trends in bilingual education research: A half-century overview. *Education Sciences*, 11(11), 730.
- Scott, M., & Christopher, T. (2006). *Textual Patterns: Key Words and Corpus Analysis in Language Educa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 Spolsky, B. (2004). *Language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www.childabusecommission.ie/rpt/pdfs>. Accessed 14 March 2016.
- Stokoe, W. C.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the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In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s* (8). Buffalo: Dept. of Anthropology and Linguistics, University of Buffalo.
- Warnicke, C., & Granberg, S. (2022). Interpreter-mediated interactions between people using a signed respective spoken language across distances in real time: a scoping review.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2, Article 387.

이선희

48513 부산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인문사회경영관(C25동) 인문사회과학동 1027호

부경대학교 강사

전화: 051-629-5371

이메일: shlee2022@pknu.ac.kr

전혜원

49112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727 한국해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한국해양대학교 연구 교수

전화: 051-410-4590

이메일: hwjeon@kmou.ac.kr

강현순

49235 부산시 서구 구덕로 285번길 20-3 오션스위트 602호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 수료

전화: 051-244 9770

이메일: kh181073@naver.com

Received on November 10, 2024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23, 2024

Accepted on December 31, 2024

